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집(1999년)

브라질의 문화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

- 18세기 문학의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

이 광 윤*

Ⅰ. 서 론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어떤 층위(Niveau)에서 고려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족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민족정체성이건 국민정체성[1]이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경험과 지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과 지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Identity)이라는 개념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소산이며, 집단의식을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속에서 한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같은 생활양식, 집단의 사회, 경제조직, 집단의 수, 힘, 질(質)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기호

* 부산외대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부교수.

1)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과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多)민족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Nation)라는 범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는 민족집단의 일원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갖는 게 보통이다.

(Signes), 상징(System)체계, 집단의 과거, 집단의 역사, 전설, 신화, 관습, 언어, 행위 그리고 집단의 사고구조(Mentality), 집단구성원들의 기본인성(Basic Personality), 타 집단과의 관계, 집단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산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체계를 이루며 이 요소들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주어 체계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공통된 문화체계 속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은 공통의 동질감을 갖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타(他) 문화세계의 사람들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동질감 혹은 동질성(Identification)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정체성은 또한 타 집단의 동질성에 대하여 차이성 혹은 이질성(Differentiation)을 갖게 된다. 이렇듯 한 집단의 정체성은 동질성과 차이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집단의 동질성이 타 집단에 대한 차이성이 강조될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집단의 정체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의 유지, 보존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단정체성을 보존, 유지하려는 집단의 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로부터 오는 도전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에 대항하는 방어기능이며, 또한 문화마다 다양하다. 또한 한 집단은 자신의 성립된 집단적 이미지를 고수하고 더욱 내세우려고 하는 반면, 타 집단이 그에게 부여한 이미지를 수용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개인이 늘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하듯 집단도 타 집단에 대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타 집단이 자신을 보는 이미지와의 괴리현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브라질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정체성의 추구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브라질의 문학사는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Índio)과 흑인혼혈인(Afro- Brasileiro)[2]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 브라질의 역사적 맥락에서 문학은 특히 모더니즘운동과 함께 "브라질정신"(Espírito Brasileiro)[3]과 브라질인의 정체성(Identidade)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고난 속에서 이를 실천해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이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색채를 띰과 동시에 유럽 문학과 어느 정도 변별성을 갖게 시작하는 포르투갈어권 브라질 문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당시 브라질문학은 신대륙의 신화(Myths)를 강조하고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소위 '경전적 지배의 힘'(Sacralizing Forces)에 이끌린 '순진한 의식'(Naive Conscience)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말았다.[4] 다분히 과거 지향적이며 보수주의적인 태도로서 문학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신대륙의 원주민을 종종 중심에서 벗어나 경계(境界)의 위치와 시간을 점하고 있는 타자(他者)로서 곡해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학은 민족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민족구성원 자신의

---

2) 식민주의와 노예제도의 정착과 함께 포르투갈 백인이 흑인을 일련의 다양한 선입관을 갖고 포로로 만들어 왔는데, 이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에 요구되는 경쟁적인 유럽-브라질인(Euro -Brasileiro)과 아프리카-브라질인(Afro-Brasileiro)의 경쟁적인 불양립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아프리카-브라질인' (또는 흑인혼혈인, Afro-Brasileiro)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흑색의 아프리카적 요소가 가미된 '브라질 혼혈인'을 일컫는말로 생각할 수 있다.

3) 산업화와 과학화, 이민의 유입과 함께 비롯된 삶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의 물결이 일고 있던 당시 브라질의 '현대적 삶의 진보'를 문화적,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지식인층의 자각적인 시위운동이었던 《현대예술주간》 행사를 통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된 브라질 모더니즘운동은 첫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함께 '브라질주의'(Brasileirismo)의 추구와 '브라질의 본성' 혹은 '브라질의 특질' (Brasilidade 혹은 Realidade Brasileira))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브라질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폭넓은 확대를 공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브라질정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브라질의 특질', 곧 브라질인의 존재의식과 자기결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4) Glissant, Edouard, O Discurso Antılhano, Petrópolis, Editora Vozes Ltda. 1983, p 193.

목소리를 '만들어진 이미지'(Invented Image)로 한정짓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의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적 독립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1922년의 모더니즘(Modernismo)운동[5]은 19세기의 비교적 자아도취와 분열의 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모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의 창조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마련하는 시기이다. 비록 상기의 상반된 가치와 질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몇몇 시인들(마리우 지 앙드라지 Mário de Andrade 와 오스왈드 지 앙드라지 Oswald de Andrade)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확고한 자기인식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20세기초 문학의 흐름은 민족주의적 감정의 자각을 통하여 국가의 본질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질서에 반발하는 동시에 여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여 탈식민주의의 전략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는 소위 "탈경전화"(Desacralization)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국 브라질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근원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브라질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정체성(Identity)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브라질의 문학사를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하면서 브라질 문학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

5) 현대적인 문화적 독립 또는 예술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모더니즘운동은 19C 世論의 붕괴와 함께 브라질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한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제적으로는 근대화와 병행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으로는 '소장장교운동'(Tenentismo)의 슬로건과 공산당의 창당으로 정치적 투쟁세력으로서 중산층의 대두가 활성화되고 이들 부르죠아 발전의 표현양상은 1922년 《현대예술주간》(Semana de Arte Moderna)이라는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공개적인 시위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접근 시각으로는 기존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인 '브라질 문학과 민족주체성의 상관관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정체성 탐구의 도구로서의 브라질 문학'이라는 견지에서 정체성의 추구라는 끈질긴 자기확인 노력이 브라질의 역사와 사회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Ⅱ. 정체성 탐구의 도구로서의 문학

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 그 사회에 고유한 동질성을 부여하려는 노력, 자신의 역사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작업 등은 문학을 통해 깊이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집단의 문학은 그 집단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충실한 거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은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유효성을 잃지 않는 진술로서 받아들여진다. 문학작품 혹은 문학 현상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층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문학사회학자들이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문화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문학은 집단의 문화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적 소산들을 하나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대의 브라질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브라질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정체성(Identidade)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브라질의 문학사를 정체성 획득의 역사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인 혹은 동일한 문화나 세계관을 공유한 집단을 개별화시키는 통일성의 원리로서 규정된다. 신분증이나 사진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이라면,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유사성, 특히 동일한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열망 등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개인의 차원에서건 집단의 차원에서건 정체성은 항상 타자를 상정해서 성립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타자로부터 나를 대립시키는 구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구별의 요소들은 구별의 행위가 발생하는 역사적 시점, 그 시점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 정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점들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정체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가는 가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집단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의 시기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행위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꿈과 열망을 대변하는 가치들의 체계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적 성격

어느 집단의 문화에 관한 고찰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문화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양면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양면성이란, 첫째, 원칙상으로 어느 문화집단이나 동일하게 전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다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예컨대 '개발문화', '미개발문화' 또는 '개발도상문화'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또 둘째로 자신의 독창성이 발현될 수 있는 변별적 측면, 예컨대 자신의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문화 또는 타문화와 구별되는 독창적 문화의 개념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이건, 문화의 형성이란 한 집단의 내적·외적 관계, 교류와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문화 혹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된다. 그러나 애초에 관계가 형성되고 교류와 갈등이 이루어진다 함은 이미 그 집단들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 못지 않는 변별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인류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문화집단들이 지나치게 문화를 공유하다가 타 집단에 흡수되었고 역시 지나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타 집단에 의해 궤멸

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집단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집단이 갖는 특이성, 이웃하는 타 문화집단과 갈등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는 변별적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전제한 문화의 양면성 가운데, 그 문화집단만이 공유하는 정신과 맥을 잇는 변별적 측면에 관심이 경도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삶은 현실을 기초로 하되 또한 자신의 근원을 주관적으로 기억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과감하게 개척하도록 만들어주는 집단 특유의 신화를 창출하면서 성취된다. 이때의 신화란 현실인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용기, 신념, 불안 등의 인간 내면의 정서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때의 신화란 한 집단의 상상력이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만들어내는 꿈의 총체적 표현인 셈이다. 그것은 집단적 몽상이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브라질과 같이, 발견과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이라는 역사적 역경을 경험하였고 또한 적지 않은 식민 본국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역사학적, 사회학 그리고 정치적 등의 연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신화를 외면하고는 브라질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브라질 사회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으로 드러난 기록된 역사와 공시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인 한 문화집단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또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문화의 기층에 자리하는 근원적 힘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생각에서 여기의 논의는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화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

나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생산하고 체계화하는 일의 그 첫 번째 몫은, 집단이 열망하는 '신화의 내용'을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화 내용'을 형상화하는 예술가들, 다시 말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불안과 욕망에 궤적인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집단 구성원들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인과 소설가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담당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의 내면세계가 갈구하고 있는 바와 함께 삶의 조건이 그들에게 운명 지워준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꿈꾸며 살아가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층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집단은 정체성을 노정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이들 집단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의하게 된다.

2. 브라질 문학에의 적용

오늘날의 브라질인들이 자신들을 포르투갈의 식민지 피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Índio)과 흑인혼혈인(Afro- Brasileiro)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까지에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강압과 착취의 식민정치역사에 시달리며, 포르투갈인들의 언어적·문화적 동화정책을 견디어 오는 동안에 브라질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적·문학적 자율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삶의 전체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포르투갈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역사를 통해 온 정치적·경제적 식민통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브라질의 역사를 규정지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정한 민족주의 문학의 시대가 개막되고 낭만주의라는 유럽의 신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브라질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비평가인 주제 아데랄두 가스뗄류(José Aderaldo Castello)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낭만주의는, 그때까지 잠재 상태에 있던 인간의 열망을 반영하듯, 그들의 개인주의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낭만주의는 각국의 자연과 사회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과 민족적·역사적 가치들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테마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의 여파를 심하게 겪고있던 시기에 갓 태어난 신생 국가의 애국적 열망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나 그들 자손들이 지녔던 민족주의의 열망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낭만주의는 가장 유익한 매개체였던 것이다."[6]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는,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브라질 문학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의 표현 양식에 반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비록 그와 같은 시도가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의식과 시도는 20세기에 들어 자국민의 언어를 통한 진정한 민족 문학을 꽃피우고자 했던 여러 문예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은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낭만주의 혁명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도 브라질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 시대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포르투갈에 종속

6) Y. Fujiyama, Histo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Àtica, 1975, p 75.

되어 있던 브라질의 문화를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낭만주의는 단순히 예술적, 문학적 차원의 혁신 운동이었기보다는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의 전통과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 구체적이고도 독창적인 문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의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적 독립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1922년의 모더니즘(Modernismo)운동은 19세기의 비교적 자아도취와 분열의 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모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의 창조를 위한 토대를 공고히 마련하는 시기이다. 비록 상기의 상반된 가치와 질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몇몇 시인들(마리우 지 앙드라지 Mário de Andrade 와 오스왈드 지 앙드라지 Oswald de Andrade)[7]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확고한 자기인식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20세기 초 문학의 흐름은 민족주의적 감정의 자각을 통하여 국가의 본질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질서에 반발하는 동시에 여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여 탈식민주의의 전략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는 소위 "탈경전화"(Desacralization)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국 브라질인들이 추구해온 탈식민화 과정은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 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억압적인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근원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브라질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공통된 집단적 열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집단의 정체성의 의미는 가변적인 것이고, 그것

7) 브라질 모더니즘의 기수라 불리는 두 사람은 국가의 재건 혹은 부흥을 위한 예술과 사상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하여 모더니즘운동의 시작이 된 《현대예술주간》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집단의 열망이나 가치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전체를 관류하고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브라질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민족국가, 즉 '브라질다운 브라질'(O Brasil brasileiro)의 건설을 위한 보편적 특징(Característica Universal)의 이데올로기였다.[8] 19세기의 브라질문학은 포르투갈문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반(反) 포르투갈 정서로 비롯되는 민족주의 열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애국심과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낙관주의와 선명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서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낭만주의시대의 주요 작가들, 즉 곤살비스 지 마갈량이스(Gonçalves de Magalhães)에서 시작하여 곤살비스 지아스(Gonçalves Dias),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Álvares de Azevedo), 까지미루 지 아브레우(Casimiro de Abreu) 그리고 까스뜨루 알비스(Castro Álves)에 이르기까지 이들 작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탁월한 종교적 감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며 한편으로는 바이런(Lord Byron)풍의 운명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새로운 인간관과 서정성을 이상으로 삼아 박애정신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였다.[9] 이

8) 브라질 모더니즘 운동의 변화의식은 브라질의 고유한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개방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현실의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으로서 사회모순을 공공연하게 폭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였다. 이러한 주체적이고도 인간적인 발전이 요구하는 민족적이고도 문화적인 삶의 확대와 상승을 유발하는 의미로 보편적 특징이라는 용어는 내적 세계관의 변화와 그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9) 특히 시(詩)의 부문에서 브라질 낭만주의는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 2단계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Lord Byron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가, 그리고 제 3단계는 박애주의 정신이 주된 테마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기 내내,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등과 같이 유럽 양식에 심취한 몇몇 작가에게서조차도, 모티브와 언어 면에서 브라질의 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1998년, pp. 85-102 참조

들의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당시의 포르투갈 문화와 문학에 대한 비판 내지 저항의 표현임과 아울러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도피적인 표현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브라질의 지식인 또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재평가하고, 민족문화의 발현 내지는 국가 실체의 발견이라는 목적성 하에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정체성의 확립문제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자신들의 문화적인 역사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분위기와 함께 자국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문학의 영역에서는 물론 문화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 갔으며 이리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떠맡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20세기초 유럽에서 불붙기 시작한 다양한 아방가르드(Vanguarda) 운동의 영향을 도입, 수용한 많은 신진 예술가들이 1922년《현대예술주간》(Semana de Arte Moderna)행사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퍼스펙티브를 제공해준 모더니즘운동은 바로 정체성 추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과거와의 단절, '파열의 이데올로기'(Ideologia da Ruptura),[10]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현과 국가 실체의 발견이라는 의도를 가진 이러한 움직임은 한마디로, 자국의 실체(Realidade Brasileira)를 확인하고 브라질의 본성(Brasilidade)과 새로운 브라질인을 창조하기 위한 문화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브라질인들에게 의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던 '현대예술주간'은 바로 브라질 사회의 정체성 확보를 공고히 한 획기적인 기점이 되었으며 그 정

10) Eduardo Portella는 "파열의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전(前) 또는 앞선 ante"의 의미보다는 "반대 anti"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함께"긍정 sim"이 "부재"하고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와 미래와 관련하여 기억상실의 태도를 보이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극단적인 입장으로 치닿게되는 추산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다고 한다. Eduardo Portella, "Literatura e Revolução em 30", In: O Romance de 30 no Nordeste, Fortaleza, Ed. Univ Federal do Ceará, 1983, pp. 21-25 참조.

신 또한 이후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브라질인들의 집단의식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브라질 사회와 브라질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추구하며 획득하고 또 내면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검토하고자 한다. 편의상 시대별로 시와 소설장르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논의 전개의 방법으로는 각 장르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브라질 문학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시인과 소설가를 선정하여 이들의 작품 속에서 브라질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양상을 추출해 내고 나아가 작가들의 태도와 변화 등을 아울러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포괄적으로 브라질 사회와 브라질인들의 유럽과 포르투갈의 피식민의식을 극복하는 탈식민주의적 문화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18세기 브라질문학에 있어서의 정체성 탐구

리쿼르가 주장한 것처럼 정체성의 문제는 언제나 서술(이야기, 담화)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11],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주변국가의 문학, 특히 그 주요 관심사가 이야기 속에 그들 공동체의 명백한 또는 암시적인 정체성의 정의를 제공해주는 문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드워드 글리상은 민족문학의 형성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문학의 기능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문학은 한편 개별적인 체계의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의 숨겨진 메카니즘을 드러내어 그것을 탈신비화 시키는 탈경전적(desacralizing) 기

11) A identidade não pode ter a forma diferente daquela forma narrativa, pois definir isso mesmo é, na última análise, narrar. Ricoeur, Paul, Tempo e Narração, São Paulo, Ática, 1986, p.327.

> 능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를 그의 신화와 믿음, 상상과 이데올로기의 주변으로 다시 모으는 경전적(sacralizing) 기능을 갖고 있다.[12]

집단적인 기억의 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의도를 명백히 표현하며 공동체의 기원적인 신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문학은, 민족적 동일성과 동질성 또는 민족중심적 정체성의 건설을 영원하게 하려는 신성하고 단일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현실을 단일한 관계의 뼈대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아직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18세기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기원적 서사시가 나라의 신화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순진한 의식"을 가리키는 경전적 힘으로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브라질 문학은 순수한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원주민, 즉 인디오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융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바로 독창적인 브라질의 민족적 의도의 건설과 가장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1920년대의 모더니즘운동은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탈경전화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차별성 또는 변별성을 향해 계속해서 열려있는 퍼스펙티브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한 역사적인 시대에 문학은 공동체를 기원적 신화나 그의 상상성 또는 그의 이데올로기 주변으로 단일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곧 타자(他者 Other)의 그릇된 해석이나 체계적인 은폐를 실행시키는 "배타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또는 추론적인 동질성으로 이끌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타자는 때때로 주변적(혹은 경계적) 공간을 대표하고 다소 변형적인 퍼스펙티브를 지니고 있는 인디오와 아프리카-흑인 혼혈인(Afro-Brasileiro)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신성한 경전적 또는 기념비적 기능은 모든 서사시의 신성한

12) Glissant, Edouard. Op.cit., p 102

기원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학실행의 이데올로기적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사시든 비극이든 이러한 경전적 기능 내에서 문학은 민속이나 퇴보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차별성 있는 문화와의 관계를 의미해야 한다.

자신의 글쓰기 작업을 기원의 신화와 자신의 뿌리 찾기에 접근하기 위해 헌신하는 작가들은 국가의 이상 건설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문학이 국가를 만들고 또한 국가가 문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두고 특히 브라질 문학의 신비와 경전적 기능을 특징 지우고 있는 주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서사시에 있어서의 미주 대륙적 공간의 형상화와 인디오의 창조

브라질문학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초기 글쓰기의 인식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이러한 표현들을 구조화하는 부차적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을 연구와 지식의 객체로서 변형하기까지의 연이은 단계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 체계의 유기체적인 특징을 획득하였던 시기인 18세기에는 적어도 그러하였다.[1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각의 시대가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문학과 역사의 단절과 불일치의 난해한 과정을 통하여 문학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변형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강한 응집력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서사시야말로 신화적인 요소에 영웅 또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력하고 우월한 힘을 가진 존재"의 위업을 가

13) Cândido, Antônio. Formação da Literatura Brasileira, Vol. I, São Paulo, Martins, 1964, p.45.

미시킨 근원적 역사사건의 서술에 대한 가장 적당한 장르임에 틀림없다. 이 장르는 정체성 형성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응집력의 최소 초점의 형성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기념비적 기능을 하게 된다. 서사시에는 특히 토착주의 또는 애향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티비즈무 (Nativismo)[14] 정서가 가장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서사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과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Índio)들의 전설과 인물들이 신고전주의적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인디아니즈무(Indianismo)의 경우 당대 학파가 이상으로 여겼던 자연 속의 인간과 비문명적이며 원시적인 아메리카 대륙의 풍경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중심에는 브라질 인디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신고전주의적 기호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유럽인들이 이상으로 갈구하였던 것을 브라질은 원초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당대 브라질 시에서는 자연의 풍경과 착한 비문명인인 인디오들이 약간의 이상주의적 표현을 빌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당대 브라질의 서사시에는 이미 포르투갈어권 문화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대서사시인 까몽이스(Camões)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주제 바질리우 다 가마 (José Basílio da Gama, 1740-1795)[15]의 대표적 서사시 『우라과이』(Uraguai)와 싼따 히따 두라

14) 영어로 Nativism, 우리말로 토착주의(土着主義) 또는 원시주의(原始主義)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17세기초 네덜란드인들이 북동부 지방을 침략하여 무력 점령하자 브라질 국민들이 지식인들과 토후 귀족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이들에게 대항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이 운동은 차후 브라질 토착민들의 반 포르투갈 정서와 합쳐지면서 브라질 민족주의로 승화되는데 문맥에 따라 애국, 또는 애향심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15)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싸웅 주제 두 히우 다스 모르찌스(São José do Rio das Mortes)에서 태어난 바질리우 다 가마는 히우 지 자네이루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예수회 선교사들이 당시 포르투갈의 철혈 재상이었던 뽕발(Pombal)에 의해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이탈리아의 로마로 이민

웅(Santa Rita Durão, 1722-1784)[16]의 대표작 『까라무루』(Caramuru)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두 개의 서사시는 포르투갈 정복자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외에 공동의 문화적 뿌리를 창조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를 찬양하며 그 자연을 주요한 주동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유럽 식민지배자의 영웅적 업적을 찬송하는 이들 서사시의 주된 의도는 아메리카대륙의 불가사의한 성격의 힘에 의해 방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시인들은 자연을 전통적 서사시 장르에서처럼 단순한 풍광의 배경으로 소개하는 대신에 시적 언술의 근본 요소로 적고 있다.

2. 바질리우 다 가마의 『우라과이 Uraguai』

위에서 이야기한 특징은 『우라과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서사시에서 우리는 민족적 의식의 점진적인 발전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 즉 서사적 소재의 신화적 차원은, 원주민인디오의 토착적 관점(퍼스

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떼르민두 시삘리우(Termindo Sipílio)라는 가명으로 이탈리아 전원주의 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친(親) 예수회 인사로 고발을 당해 체포되는 불운을 겪는다. 하지만 뽕발재상의 딸에게 헌사한 시(詩) 『결혼 축시』(Epitalâmio)덕분에 석방되고 나아가 리스본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뽕발 재상의 보호와 총애를 받기에 이른다. 『결혼 축시』와 몇몇 작은 시들 외에 그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우라과이』(Uraguai)라고 하는 서사시를 남겼다.

16)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태어난 프레이 주제 지 싼따 히따 두라웅은 싼뚜 아고스찡뉴(Santo Agostinho) 종교단에서 교리를 가르쳤고 뽕발 재상의 개혁 이후엔 꼬임브라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의 대표작인 『까라무루』(Caramuru)는 헤꽁까부 바이아누(Recôncavo Baiano) 지역과 초창기 브라질의 발전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디오구 알바리스 꼬헤이아(Diogo Álvares Correia, 일명 까라무루 Caramuru)의 생애를 소재로 전개하고 있다. 보고(報告) 문학과 연대기 작가로서의 감각까지 지녔던 그는 풍요로운 열대 지방의 자연 및 역사적 사건들을 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디오들의 풍습, 기질 그리고 그들의 종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펙티브)내에서 브라질 특유의 민족적 성격(Brasilidade)을 통합하고 이와 함께 식민지배자를 영웅으로 그려내기 위해 신비함과 경이스러움의 토착적 차원을 요구하게 된다.[17]

이 서사시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사주로 1750년 마드리드 협정에 반발한 인디오들과, 스페인 군과 함께 이들을 타파하러 나선 정복자 고메스 프레이리 지 앙드라지(Gomes Freire de Andrade)를 비롯한 포르투갈 군인들 사이의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은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쎄찌 뽀부스 다스 미쏭이스(Sete Povos das Missões) 마을의 인디오들을 포르투갈령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스페인과 이에 반발한 포르투갈 사이의 협정을 말하며 서사시 『우라과이』는 바로 이 협정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뽕발 재상의 정책을 찬양한 것이다. 이 서사시에서 보여지듯, 피식민지배자의 문화적 관점은 식민자의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며, 이것은 이야기체에서의 브라질민족주의 의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브라질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듯 아메리카적 신화의 대상은 18세기 작가들의 서사적 의도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들은 놀라운 신대륙의 마력에 이끌려져 왔다. 신대륙의 신비한 자연에 대한 강조는 포르투갈 식민지배사업을 신성시하려는데만 골몰하였던 작가들의 초기 의도를 바꿔놓고 말았다. 이러한 실례중의 하나가 다음의 구절에서 보여지듯, 요술사 따나주라의 마술적 세계가 정복자 고메스 프레이리 지 앙드라지와 유럽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작가 자신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이성적 세계와 서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 그러나 현명하고 경험 많은 주름살투성이의
> 따나주라 (그녀의 가슴속에서
> 행복했던 시절 가엾은 린도이아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 젖먹여 키운)
> 그녀는 환영과 미신적인 역사를 통하여,

17) Silva, Anazildo V. da. A Formação Épica da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Elo, 1987, p 31.

미래를 읽고 있네.
벗겨진 두개골과 구멍난 뼈를 주운
열린 무덤에서부터,
언제나 초록의 촛불이 타고 있는
무서운 동굴까지,
그녀는 딸처럼 사랑했던 울고 있는
린도이아를 이끌고 갔네.
그리고 흐르는 샘물에서 순수한 술을
녹슨 컵에 담아두었네.[18]

『우라과이』에서의 인디오는 서구화된 백인종족의 가치론적 패러다임(전형)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하여졌으며, 이는 "미개한 아메리카(inculta América)", "세련되지 않은 민족(povo rude)", "야만인들이 거주하는 일곱 마을(sete povos, que os bárbaros habitam)", "훈련되지 않고, 가치도 없으며, 무기도 없는 열등한 인디오들(indios rudes, sem displina, sem valor, sem armas)" 그리고 "미개하고 단순한 사람들(a inculta gente seimples)" 등의 표현에 의해 지적되듯이, 인디오 문화의 체계적인 부정을 남기게 된다.

18세기동안에 발전된 민족의식은 이처럼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오 원주민에 대해 미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 작가들에 의하여 찬미되어지는 동시에 식민지배자의

---

18) *"Mas a enrugada Tanajura, que era*
Prudente e experimentada (e que a seus peitos
Tinha criado em mais ditosa idade
A mãe da mãe da míseria Lindóia)
E lia pera história o futuro,
Visionária, supersticiosa
Que de abertos sepulcros recolhia
Nuas caveiras e esburgados ossos
A uma medonha gruta, onde ardem sempre
Verdes candeias, conduziu chorando
Lindóia, a quem amava como filha;
E em ferrugento vaso licor puro
De viva fonte recolheu." (Canto III, 65-66)

가치도 찬미되어지고 잇는 것이다.[19]

한편 그는 여러 면에서 까몽이스의 영향을 극복하려는 듯 서사시를 5개의 장(章, canto)으로 나누면서 시구를 여러 개로 분할하였으며 아울러 무운 오각(無韻 五脚)의 억양격(抑揚格)을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서사시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도입》(proposição) 부분을 없애고 곧바로 《서술》(narração)을 시작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우루과이』의 큰 장점은 무엇보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디아니즈무(Indianismo)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인디아니즈무 낭만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애국적·반포르투갈적 이상주의를 표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브라질 원주민 인디오들을 선(善)한 비문명인으로,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쎄뻬(Cepê), 까깡부(Cacambo), 린도이아(Lindóia), 까이뚜뚜(Caitutu) 등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인디오들의 출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들과 자연 풍경에 대한 표현들은 그가 시인으로서 탁월한 언어 감각을 가진 예술가임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그의 자질은 특히 장면 구성이나 풍경 묘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루과이』의 첫 장(canto I)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황량한 해변가엔 아직도,
> 불결하고 밋밋한 핏빛 물결이 맴돌고
> 벌거벗은 시체들이 떠다닌다
> 까마귀들이 주위를 맴돌고 계곡엔 아직
> 분노한 기병대의 함성이 울려퍼진다.[20]

---

19) Cândido, Antônio, "Literatura e Subdesenvolvimento", In América Latina em sua Literatura, São Paulo, Editora Perspectiva, 1979, pp. 343-362 와 "Literatura e Consciência Nacional", In Suplemento Literário de Minas Gerais 156, 6 de setembro, 1969, pp.8-11을 참조.

20) *"Fumam ainda nas desertas praias*
Lagos de sangue tépidos e impuros
Em que ondeiam cadáveres despidos,
Pasto de corvos Dura inda nos vales

서정적 정서가 가득한 제 3 장(canto III)의 다음의 구절도 그의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루한 망토에 쌓인 하늘을 부정했다.
세상에 빛이 내리고,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은 휴식을 취하지만
강 저편에선 불안한 까깡보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21]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당시 포르투갈 뽕발 재상의 업적을 인디오 까깡부의 영웅적 일생에 비유하면서 그를 찬미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루과이』에 나오는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자신의 남편인 까깡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삶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린도이아의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고통을 본 요술사 따나주라(Tanajura)가 그녀를 동굴로 인도하여 요술을 이용, 뽕발 재상에 의해 재건된 리스본의 환영(幻影)을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으려 하려 한 점은 다소 옥의 티라고 하겠지만, 작가는 이 작품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가는 스스로 코브라에게 물려 세상을 하직한 린도이아 이야기를 제 4장(Canto IV)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죽은 그녀의 얼굴에서도
죽음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22]

O rouco som da irada artilharia."

21) *"Negava o céu envolto em pobre manto*
A luz ao mundo, e murmurar se ouvia
Ao longe o rio, e menear-se o vento
Respirava descanso a natureza.
Só na outra margem não podia entanto
O inquieto Cacambo achar sossego."

22) *"Tanto era bela no seu rosto a morte!"*

3. 싼따 히따 두러웅의 『까라무루』(Caramuru)

『우라과이』에서 지적된 18세기의 민족의식의 모호성은 싼따 히따 두러웅의 대표작 『까라무루』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이 작품은 공포적 관점에 근거하는 인디오들의 이미지(야만적이고 미개하며 잔인하고 우둔한 야만종족 등과 같은)구축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풍요로운 열대지방의 자연과 기후, 생태계 그리고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 폭넓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의 자연적 속성에 대해 강렬하고 놀라운 경이의 태도를 시의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서사시에서 사용된 언어 또한 일단의 모호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데, 작가 자신이 인디오의 언어가 알기 어렵고 모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시에서 표현된 인디오들의 용어 대다수가 신대륙의 무수히 많은 인디오 원주민적인 지시대상물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용어를 갖지 못하였던 포르투갈어의 제한에 의해 필연적으로 표현되는 점진적인 언어의 혼합(혼성)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토착적인 언어로부터 취한 단어와 표현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이름 붙이면서, 작가는 대륙의 고유한 상징화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타당성, 유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메리카 문화는 서로 다른 것만이(차별적인 것만이) 자기 자신의 문화보다 열등할 수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자기민족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인은 그래서 1920년대의 모더니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식인풍습을 하나의 의식행사와 관례로서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이를 오히려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운 풍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 그렇게도 혐오스러운 일(식인행위)의 동반자들이
> 한편으로 법석스러운 군중을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
> 최소한의 역겨움도 없이 피를 없애버리는
> 여섯 명의 추악한 노파들을 뒤따른다.
> 그들은 바로 악마의 얼굴을 가진

더럽고 추악한 야수들이다.[23]

보고(報告) 문학과 연대기 작가로서의 감각까지 지녔던 작가는 풍요로운 열대 지방의 자연 및 역사적 사건들을 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디오들의 풍습, 기질 그리고 그들의 종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는 바질리우 다 가마 보다 훨씬 사실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앞서의 시 귀절에서도 보듯이 인디오들의 식인 풍습에 대한 묘사는 뻬루 지 마갈량이스 간다부(Pero de Magalhães de Gândavo)[24]의 시를 상기시킬 정도이다.

그리고 시신을 천 갈래로 찢어
굶주린 어떤 이는 다리와 팔을,
다른 이는 팔뚝을,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날로 먹고 있었다.
추악한 포식 속에 광란하는 모습이었다.
불타오르는 구덩이에 그것을 굽는 자도 있었고;
몇몇은 불길에 뼈를 그을고 있었다.[25]

---

23) *Companheiras de ofício tão nefando*
Seguem de um cabo a turba e de outro cabo
Seis torpíssimas velhas aparando
O sangue sem um leve menosvabo.
Tão feias são que a face esta pintado
A imagem propríssima do diabo (Canto 1. LXXX)

24) 『브라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聖) 십자가 지방의 역사』(História da Província de Santa Cruz a que Vulgarmente Chamamos Brasil)와 『브라질 땅에 대한 연구』(Tratado da Terra do Brasil)라는 브라질의 자연과 토착민의 생활상을 객관적이면서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묘사한 작가로서, 전자의 작품은 특히 포르투갈의 대서사시인 까몽이스가 동 리오니스 뻬레이라(Dom Lionis Pereira)에게 헌사한 3연시 (tercetos)의 습작 동기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기억할만하다.

25) *"E, retalhando o corpo em mil pedaços,*
Vai cada um, famélico, trazendo,
Qual um pé, qual a mão, qual outro os braços
Outros na crua carne vam comendo.
Tanto na infame gula eram devassos
Tais há que as assam nos ardentes fossos;

『우루과이』(Uraguai)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은 빠라과쑤의 라이벌이었던 원주민 여인 모에마(Moema)가 죽는 장면일 것이다. 까라무루와 그의 약혼녀 빠라과쑤가 탄 배가 해안을 떠나는 것을 본 모에마는 그들을 뒤쫓아 바다에 몸을 던지는데 "배에 접근한 그녀는 배의 방향타에 매달린 채 그녀(빠라과쑤)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열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버리고 어리석고도 못생긴 천한 그녀를 데리고 떠나는 그대 까라무루"를 향해 분노의 격한 말을 쏟아낸 뒤 최후를 맞는다.

> 눈빛을 잃은 분노한 모습으로 몸을 떤다
> 창백한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 드리우고,
> 이미 힘을 잃은 손은 방향타를 놓치니
> 물거품에 싸여 심연으로 잠겨가고,
> 분노한 파도는 다시 치솟아 오른다,
> - 오! 잔인한 그대 디오구! - 고통의
> 울부짖음과 함께 그녀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말았다.[26]

구성 면에서 10개의 장(章)에 8행시 형태를 취하는 등 까몽이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시에는, 빠라과쑤의 꿈속 대화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브라질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계시도 나타나 있다. 어쨌든 이 시의 독창성은 아메리카니즘 정서의 한 가운데 놓인 모티브에 있다고 하겠다.

『우라과이』에서와 같이, 『까라무루』에서도 인디오는 영웅적인 차원에

Alguns torrando estão na chama os ossos."

26) *"Perde o lume dos olhos, pasma e treme,*
Pálida a cor, o aspecto moribundo;
Com mão já sem vigor, soltando o leme,
Entre as salsas escumas desce o fundo.
Mas na onda do mar, que, irado, freme,
Tornando a aparecer desde o profundo,
- Ah, Diogo cruel! - disse com mágoa,
E sem mais vista ser, sorveu-se na água."

서 그려지고 있다. 포르투갈인 주인공 디오구 알바리스 꼬헤이아(일명, 까라무루, Caramuru)의 생애를 소재로 전개하면서 그의 용기를 서술하는 것 외에 시인은 구뻬바(Gupeva), 쎄르지삐(Sergipe), 자라라까 (Jararaca), 모에마(Moema), 빠라과쑤(Paraguaçu) 등 여러 인디오들을 등장시키고, 특히 프랑스에서 대모(代母)인 까따리나 지 메디씨스(Catarina de Médicis)의 주선으로 까라무루(Caramuru)와 결혼하는 인디오 여인 빠라과쑤(Paraguaçu)라는 여인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서구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 쉽게 이해되지는 못하고 있다.

> 그렇게도 혐오스러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 부드럽고 친절한 빠라과쑤(그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 그녀의 마음은 흰 눈처럼 순백하여
> 눈이 아닌 곳에서는 장미와 같으니.[27]

빠라과쑤는 그녀의 남편 까라무루와 동행하여 유럽에서 까따리나(Catarina)라는 서구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녀의 원래 이름을 잃게 되는 것은 곧 그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며 동시에 타문화의 이질적인 요소에 의한 빈번한 문화변형(transculturação)의 과정 속에서 식민지배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박탈해야 하는 인디오(원주민) 거주민의 포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Ⅳ. 결 론

오늘날의 브라질인들이 자신들을 포르투갈의 식민지 피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식된 이베리아인(포르투갈인)으로 시작하

---

27) *Paraguaçu gentil (tal nome teve)*
Bem diversa de gente tão nojosa,
De cor tão alva como a branca neve
E donde não é neve, era de rosa. (Canto 2: LXXVIII)

여, 점차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인으로 변모되어 원주민(Índio)과 흑인혼혈인(Afro- Brasileiro)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까지에는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다. 포르투갈의 강압과 착취의 식민정치역사에 시달리며, 포르투갈인들의 언어적·문화적 동화정책을 견디어 오는 동안에 브라질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적·문학적 자율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삶의 전체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브라질의 역사는 적어도 문화사적인 면에서 볼 때 정체성 획득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의 매 단계마다 브라질사회의 제반 여건들과 브라질인들의 집단적 열망, 꿈 등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정체성의 표현들은 일종의 신화적 양상을 띠면서 브라질인들과 브라질 사회를 움직여 온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미 내용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일련의 신화적 표현들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일 예가 『우라과이』와 『까라무루』라는 서사시에서처럼 포르투갈 정복자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외에 공동의 문화적 뿌리를 창조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간의 진정한 탄생'이라는 정체성 획득의 과정과 일치하면서 낡은 세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낙원과 같은 세계를 건설하려는 집단적 열망의 표현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브라질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공통된 집단적 열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포르투갈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역사를 통해 온 정치적·경제적 식민통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브라질의 역사를 규정지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정한 민족주의 문학의 시대가 개막되고 낭만주의라는 유럽의 신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브라질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바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는,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브라질 문학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의 표현 양식에 반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비록 그와 같은 시도가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의식과 시도는 20세기에 들어 자국민의 언어를 통한 진정한 민족 문학을 꽃피우고자 했던 1922년의 모더니즘운동을 비롯한 여러 문예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은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18세기 식민지시대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 브라질 문학에 나타난 브라질의 정체성 확인과 그 과정 등을 질라 베른드가 이야기 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면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경이롭고 신비적인 현실로서의 아메리카대륙 공간의 전용(appropriation)과 둘째, 원래의 단일성과 역사의 시초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일치하는 과거로의 향수적인 회귀에 근거한 시간의 개념화, 셋째, 유럽의 가치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외부적인 시각에서 신대륙의 거주민을 판단하고 그들을 거짓으로 대변한 통일체적이며 경계론적 언술의 구축, 넷째, 상징적인 영웅은 언제나 식민지배자인 포르투갈인으로 귀결되는 점, 그리고 다섯째, 백인 지배자의 문화에 대하여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인디오 타자(他者)에 대한 조소적인 태도가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대표적 특징[28]으로 볼 수 있다.

---

28) Bernd, Zila.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Chanady, Amaryll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 86-103.

참고문헌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1998.

_____, "현대 브라질에서의 이념적 독립성과 문학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 모더니즘과 향토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권 제 1 호, 국제지역학회, 1997, pp. 191-221.

Bernd, Zila.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Chanady, Amaryll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p. 86-103.

Bosi, alfredo, *História Concis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Cultrix.

Cândido, António, *Formação da Literatura Brasileira, Vol.* I, São Paulo, Martins, 1964.

_____, "Literatura e Consciência Nacional", In: *Suplemento Literário de Minas Gerais*, 6 de setembro, 1969, pp.8-11.

_____, "Literatura e Subdesenvolvimento", In: *América Latina em sua Literatura*, São Paulo, Editora Perspectiva, 1979, pp. 343-362.

Chiampi, Irlemar, *O Real Maravilhoso*, São Paulo, Perspectiva, 1980.

Durão, Santa Rita, *Caramuru*, Rio de Janeiro, Agir, 1957.

Fujiyama, Y., *Histo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Ática, 1975.

Gama, José Basílio da, *O Uraguai*, Rio de Janeiro, Agir, 1964.

Glissant, Edouard, *O Discurso Antilhano*, Petrópolis, Editora Vozes Ltda, 1983, p.193.

Moreira Leite, Dante, *O Caráter Nacional Brasileiro*, 4 ed., São Paulo, Pioneira, 1983.

Pinheiro, Amálio, *Aquém da Identidadede da Oposição: formas na cultura mestiça*, Piracicaba, Unimep, 1994.

Portella, Eduardo, "Literatura e Revolução em 30", In: *O Romance de 30 no Nordeste*, Fortaleza, Ed. Univ. Federal do Ceará, 1983, pp. 21-25.

Ribeiro, João Ubaldo, *Viva o Povo Brasileiro*, Nova Fronteira, 1984.

Ricoeur, Paul, *Tempo e Narração*, São Paulo, Ática, 1986.

Silva, Anazildo V. da., *A Formação Épica da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Elo, 1987.

Sussekind, Flora, *O Brasil não é longe daqui*,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1990.